

“비용절감보다는 생산성 향상극대화에 최선을”

한국양돈연구회, 전국 양돈세미나 개최 제8회 한국양돈대상 이재용 등급판정소장 수상 영예



▲ (사)한국양돈연구회(회장 김태주)는 지난 10월 1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전략”이란 주제로 ‘전국양돈세미나’를 개최했다.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장에서의 비용절감 대신 생산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한국양돈연구회(회장 김태주)는 지난 10월 1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김동환 양돈협회장,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이상진 농진청 축산과학원장, 이재용 축산물 등급판정소장 등 내빈 및 양돈농가, 수의사 등 양돈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전략’이란 주제로 ‘전국양돈세미나’를 개최했다.

비용 절감보다는 생산성 극대화에 초점

이날 그레고리 오토 한국화이자동물약품 대표



▲ 오토 한국화이자동물약품 대표

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높은 폐사율로 인한 출하율 감소 문제 해소가 한국 양돈산업의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일선 농장에서 비용

절감보다는 생산성 향상 증대를 위해 기본에 충실한 개체관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특히 돈군이 아닌 돼지 개체로의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섬세한 관리와 대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생산성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RRS 청정화 가능여부 농장주의 의지가 중요

한편 김돈환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기술지원 팀장은 '폐쇄돈군의 PRRS 청정화전략과 관리기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PRRS안정화라는 기본조건 아래 철저한 차단방역과 세심한 사양관리로 위축성 비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흉막폐렴 등의 백신없이도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일 수 있는 사례들을 발표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

역과 사양관리, 무엇보다도 농장주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PRRS 청정화가 그리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HACCP개요 및 필요성(이경순 축산물 HACCP기준원 평가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돼지 관리 기본지침(그레고리오 토 한국화이자동물약품 대표) △써코바이러스 관련 질병과 방제(류영수 건국대교수) 등의 주제가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 이재용 축산물등급판정소장 한국양돈대상 수상 영예 *



한국양돈협회와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의 후원으로 제8회 「한국양돈대상」 시상식에서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재용 소장(가운데)이 자랑스런 한국 양돈인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재용 소장은 지난 30년 동안 공직자로 양돈산업 및 축산업에 헌신한 공로가 높이 인정되어, 양돈업계 단체장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재용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양돈산업은 분명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순환농업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에 초

점을 맞춘다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으뜸품질 우리돈육